

전문가 칼럼

전기차와 솔라루프, 그리고 트럼프



문상진 회장 한국태양광발전협회

지난 11월4일, 파리 기후협정이 유엔에서 정식으로 발효가 되었다. 바야흐로 신기후체제의 서막이 열린 것이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기후협상에 합의한 지 2년 만이다.

두 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세계 배출량의 40% 이상을 차지하니 이들 두 나라의 참여는 필수적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세계적인 기상이변 하에서 하루라도 속히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이 유일한 해법임을 전 세계인이 인

식한 결과가 더 될 것이다. 그러나 출발부터 심상치가 않다. 미국 대선이 공화당의 승리로 끝나면서 그간 오바마 대통령의 신기후체제 대응 노력이 훨씬 후퇴하거나 축소될 여지가 커진 것이다.

실제로 민주당의 클린턴 후보는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700% 확대와 태양광 패널 5억장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이젠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패널 5억장은 대략 태양광 발전 설비 150GW에 이르는 막대한 양이다.

이런 예견된 정책에 힘입은 지 테슬라사의 엘런 머스크는 지난달 태양전지 패널 일체형 지붕 타입인 '솔라루프'를 개발하여 판매에 들어간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뛰어난 디자인으로 태양광 패널인지 구분이 안갈 정도라니,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판에 들어 갈 전기 저장장치 '파워월(power wall)'과 범용 전기차 '모델'로 이어지는 3박자 모두 갖추게 되었다. 즉 태양

전지로 만들어진 잉여 전기를 지하를 벽에 걸린 파워월에 저장하였다가 전기차를 충전하는 방식인 것이다. 스탠포드대의 '토니 세바'가 그의 저서 '에너지 혁명 2030'에서 실과한 바로 그 모델이 2년도 채 되지 않아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독일 상원의 2030년 이후 내연기관 자동차의 퇴출을 권고했다는 기사도 심상치가 않다. 또한 엇그제 일본의 도요타가 친환경차로 개발하던 수소차 대신 주된 방향을 전기차 생산으로 선회할 것이라던 얘기도 들린다.

이런 일련의 노력들이 트럼프의 당선으로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 궁금하다. 트럼프 당선자는 전통적인 미국 공화당의 오일, 가스 위주 에너지 정책에, 일자리 확대를 위한 보호무역과 기존 굴목산업의 부활을 기치로 표를 모아 당선됐다. 물론 이미 발표된 파리 기후협정까지 무시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역사는 정반합이라고 했던가. 그간 인터넷과 정보화의 발달로

가속화된 세계적인 양극화 현상은 지구환경에 앞서 배고픈 인류에게 빵이 급하다고 얘기하고 있다. 일리가 있고 무시할 수 없는 다른 한편의 소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매년 더 강력해지는 허리케인과 태풍, 기상이변은 지구환경을 돌보는 조치도 더 이상 유보될수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지구도 지켜내고 일자리도 지켜내야 할 지혜가 필요하다.

전기차의 등장으로 당장은 기존 자동차의 수많은 부품업체들이 타격을 입겠지만, 단순해진 전기차의 친환경적이라고도 멋진 외관, 저렴한 가격과 연비에 나부터도 사고 싶어진다. 대신에 수많은 여러 기능의 센서들과 소프트웨어가 부품업체의 새로운 수익원이 될 것이다. 테슬라의 솔라루프도 새로운 일자리다.

새로운 기후기술과 기후산업을 개발하고 산업화하는 데에 주춧돌 시간이 없다.

신기후체제가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2021년은 트럼프의 4년보다 뒤 얘기이다.

社說

에너지업계, 경계는 하되 겁은 먹지 말라

'트럼프의 미국' 우려보다 지구책 마련에 골몰할 때

우리나라도 어려움에 봉착해 있지만, 에너지업계는 특히 미국의 대통령으로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 것을 더욱 걱정하는 눈치다. 그도 그럴 것이 당장 미국의 에너지 정책 중 석유와 가스 같은 전통에너지를 중시하고,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정책은 폐지하거나 축소하겠다는 발언을 하고 다닌 후보였다는 점을 업계에서는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기후변화 대응은 이제 더 이상 미국의 정책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그러한 우려를 계속해서 증폭시키고 있다.

석유와 가스 같은 전통에너지 역시 미국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원칙이 적용될 것이다. 분명히 화석연료의 생산과 수출을 늘린다고 했지만, 미국에서 수입하는 자원은 보호무역의 틀 안에 가두게 되어 수입국의 지위박에는 누리지 못할 우리로서는 당장 손해가 될 공산이 크다.

더구나 우리로서는 태양광과 풍력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에서 나름대로의 위치를 점하는 미국에 대한 수출 활로를 모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 분명하다.

파리협정 등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정책에는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트럼프는 파리협정에서 탈퇴한다거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어렵다는 요지의 발언을 종종 했다.

트럼프의 더 큰 문제는 이렇다 할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선거 내내 그는 극보수 미국인의 '이미지'를 내뽐기는 했지만, 정책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비판을 들어야 했다. 막상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는 구체적인 정책이 나와 우리로서도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점에서 우리나라 역시 막막한 벽을 만난 격이 됐다.

하지만 트럼프가 무서워 아무것도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시각이다. 트럼프에게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이 문제라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잘 이용만 하면 형세를 뒤집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도 있다.

더구나 미국이 자국의 이익만을 우선하는 정책을 취한다면, 국제적인 장악력이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그러한 상황을 미국 정부가 용인할 것인지 여부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미국이 그러한 상황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거나 적을 것이라고 본다.

최악의 상황에서 '숫아날 구멍이 있는' 시나

리오는 상하원과 연방 내의 각 주 정부들이 나름의 정책을 세운다는 것이다. 연방정부인 트럼프 행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과 방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의회와 각 주 정부가 세운 구체적인 방안들이 정책으로서의 유효성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 우선은 미국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다만, 연방 정부가 아닌 각 주의와 사업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다. 각 주의와 사업 공조를 강화하면 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등 도움이 될 수 있다.

미국 이외의 다른 국가와의 공조를 강화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향이 될 수 있다. 미국과 중국 등 전통적인 강대국 외에도 우리 주변에는 아직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에너지 측면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거나, 점할 것이 예상되는 나라가 있다. 대표적으로 몽골이 있는데, 이 나라의 지하자원과 풍력 및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자원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유관 업계로서는 대단한 기회의 땅이라고 할 만하다. 이외에도 우리나라의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기술력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많이 있다. 다만 최근에 중국의 기술력이 어마어마하게 향상되고 있는 점이 우리의 기회요인을 약간 상쇄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방향으로든 모색을 해 보아야 하는 입장에서 그러한 장애물이 우리의 진로를 막아서도 안 되고, 거기에 막혀서는 더욱 안 된다.

일부에서는 트럼프와 공화당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파리협정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걱정을 하기보다는 트럼프의 미국을 설득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든지, 트럼프를 피하고 다른 상대와 머리를 맞닿 기회를 찾든지 해야 한다.

그래도 걱정이 된다면 과거를 한 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방'이고 '맹방'이며 '혈맹'이라고까지 얘기했던 미국이 과연 우리에게만 유리한 방향으로 이제껏 정책을 짜 왔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은 과거에나 현재에나 미래에도 똑같이 자국의 이익에 맞게 정책을 세워 실행해 왔으며 실행할 것이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됐다고 상황이 달라진 것은 없다. 에너지업계는 겁먹는 대신 정신을 차려야 한다.

내달 6일 '2016 해외자원개발 심포지엄' 열린다

해외자원개발협회가 12월 6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2016년 해외자원개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올해 9회째를 맞는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서울대학교 IEPP, 해외자원개발진흥재단, 한국자원공학회, 대한지질학회 등 8개 기관이 공동 개최하고, 해외자원개발협회가 주관하며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한다.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는 '우리나라 해외자원개발의 미래를 묻다'로 협회는 불확실성이 상존하

해외자원개발협, 자원개발 활성화 '교류의 장' 마련



지난해 열린 해외자원개발 심포지엄. 국내외 참석자들이 주제발표 내용을 듣고 있다.

는 현재 글로벌 환경에서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한 대응전략을 논의하고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면 확대에

필요한 '교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조세션에서는 구르칸 쿰바로그루(Gurkan Kumburoglu) 세계에너지경제학회 회장이 'The Dynamic Energy Landscape'를 주제로, 알렌 길머(Allen Gilmer) 드릴링인포(Drilling Info) 최고경영자가 'Global Investment Trends in a low commodity environment'를 주제로, 신중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원장이 '우리나라 자원개발의 미래'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또한 해외자원개발 유공자 포상, 자원개발 대학(원)생 우수논문 및 해외자원개발 콘텐츠 공모전에 대한 시상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조성구 기자

1994년에 설립된 한국에너지신문은 에너지 산업계와 관련 기관 및 공기업과 22년간의 역사를 함께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에너지신문은 업계의 발전을 선도하는 매체로 독자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문의 02-3463-4114

에너지 산업을 세계 일류로 청정한 환경을 다음 세대로 에너지뉴스는 한국에너지신문

한국에너지

THE KOREA ENERGY NEWSPAPER

1994년 5월 3일 창간 등록번호 서울D06648(주2)

발행인·편집국장 남부성 인쇄인 배성환

본지는 전문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대표전화 (02)3463-4114 대표FAX (02)3463-6166
편집국 (02)3463-6160 광고국 (02)3463-6110
(우137-894)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길 31, 장현빌딩 3층

www.koenergy.co.kr E-mail: ken@koenergy.co.kr

1년 : 81,000원 (15%할인) / 1부당 1,700원 / 정가 96,000원

2년 : 144,000원 (20%할인) / 1부당 1,500원 / 정가 192,000원

에너지 산업을 세계 일류로, 청정한 환경을 다음 세대로

1994년 창간된 한국에너지신문은 에너지 산업계와 관련 기관 및 공기업과 22년간의 역사를 함께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에너지신문은 업계의 발전을 선도하는 매체로 독자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한국에너지신문
www.koenergy.co.kr 02-3463-4114